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7, 2019 Vol. 658



OC목사회 이·취임식 및 찬양예배가 3일 오후 5시에 갈보리장로교회(김정찬 목사)에서 열렸다.

"예수와 연합해 하나님의 뜻 이루겠다"

OC목사회 이·취임식 및 찬양예배 드려

OC목사회 이·취임식 및 찬양예배가 3일 오후 5시에 갈보리장로교회(김정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찬양예배는 찬양인도, 기도에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찬양, 취임말씀 및 신임원 소개, 헌금특송, 축사에 김향길 목사(원로목사회 회장), 격려사에 김종대 장로(OC한인회장), 내빈소개, 찬양에 글로벌메시아찬양단, 광고에 김병호 목사, 축도에 김정찬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근수 목사는 취임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처음부터 홀로 살게 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깊은 고통과 동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돕는 배필을 얻을 수 있다. 돕는 아내와 친한 친구로 인해 온전한 삶을 살수 있다"라며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영성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목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찬양 시간에는 OMC미션콰이어, 목사장로부부찬양단, 글로벌메시아찬양단이 참여해 은혜를 더했다.

격려사를 전한 김종대 장로는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목사회가 올 한해 동안 잘못된 관행은 고쳐나갔으면 한다. 인간에게는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편"이라며, "사역 중에 실족하지 않고 좋은 목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OC목사회 목표는 '작은교회 세우기'이다.

토마스 맹 기자

성시화운동본부, 진유철 목사 대표회장 위촉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위촉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23일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며 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이 행사에서는 그동안 공동회장을 맡았던 진유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위촉됐다. 진 대표회장은 "미주 각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 사역, 섬김 사역,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모델로 삼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성시화 운동은 한국에서는 1972년 故 김준곤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2면에서 계속]

사 고 기독일보

미주 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 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2월 12일-15일 사랑의빛선교교회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는 '미주 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 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를 2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4일간 파세디나에 있는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미주 각 지역의 성도와 단체를 대상으로 열리며 고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선교 역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영화 동족 선교 등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서 연합기도를 이끈다.

영역별 강의(오전 9:30-11:30, 오후 1:30-4:30)는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천기원 목사(두리하나 대표)-'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윤학렬 감독-'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 문화의 영향력', 강석진 선교사-'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신창민 박사(서울대 법대)-'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녁 집회(7시-9시)는 임현수 목사-'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정훈 교수-'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이승종 목사(한인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차세대 양육과 통일선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작년 3월에 결성된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는 임현수 목사, 유관지 목사,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박상원 목사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가 공동대표로, 박상원 목사가 총무간사로 있으며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주관하고 T.M.T.C. 합류통일동포연합, 기독일보, 기드온동족선교회에서 협찬한다.

문의(425)775-7477, (213)739-0403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진유철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위촉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 오후 5:30
▪금요예배 : 오후 5:30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요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 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 년 3월부터 2013 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컬럼니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제28대 정기총회가 1월 17일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렸다.

“지역 사회 섬기는데 최선 다할 것”

OC교협 28대 정기총회, 임원진 전원 유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제28대 정기총회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들은 2018년 회장단을 포함해 임원진들 전원을 만장일치로 유임했다.

OC교협은 상임이사회가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하고 총회가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수석 부회장에 남성수 목사가 새롭게 인준됐으며, 회장에 이서 목사, 대외에 조헌영 목사, 기획에 박재만 목사, 영성에 이선자 목사, 신학에 박용일 목사, 선교에 이창남 목사, 평신도에 민 킴 집사가 각각 부회장으로 유임됐다.

이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OC교협이 적은 일이나마 교회와 기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꿈을 꾸게하는 사역이 됩시다”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성시화 운동 다음 주자 찾던 차에
연합사역 경험 많은 진유철 목사
마침내 대표회장직 수락해
나성순복음교회 16명
성시화 사역의 든든한 후원군

[1면에 이어서]

미주성시화운동은 2003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시작됐다.

그 후 16년간 이 단체는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여성, 청년으로 구성된 각각의 홀리클럽을 통해 정례예배와 기도회를 꾸준히 해왔으며 2008년 LA 다민족 성시화 대회를 시작으로 다민족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 2011년 11월 로즈볼 다민족 연합 기도회, 2012년 10월 크랜셔 크리스천 센터 다민족 연합 기도회, 2016년 4월 아주사 나우(Azusa Now) 다민족 연합 기도회 등 대규모 기도 집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미주성시화 운동을 이끌던 박희민 목사(명예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대표회장), 한기형 목사(전 상임회장) 등이 모두 목회에서 은퇴한 상황에서, 미주의 성시화 운동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발굴하는 일이 큰 과제로 대두되던 차였다.

남미 선교사 출신인 진 대표회장은 남가주교협 회장을 역임하며 교계 연합 사역에 경험이 많고 현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미주복음방송 이사 등 교단 안팎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진 대표회장은 그동안 대표회장직을 고사해 왔으나 지난해 말, 교계 원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 대표회장인 송정명 목사와 함께 대표회장직을 맡는 조건으로 직임을 수락했다.

이번 임원 위촉식에서 미주성시화운동은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를 OC 대표회장, 이성현 목사(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를 샌디에고 대표회장,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를 캐나다 대표회장, 김상돈 목사(과테말라한인교회)를 과테말라 대표회장으로 위촉했다.

한기홍 목사, 이성현 목사, 임현수 목사, 김상돈 목사는 각 지역의 대표회장이면서 미주 공동회장이란 직책도 맡는다.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도 공동회장이다.

한편, 미주성시화운동은 최문환 이사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이사가 활동 중이었는데 이번에 진 대표회장 취임과 동시에 나성순복음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16명도 이사로 위촉받으면서 성시화 사역의 든든한 후원군을 자청했다.

이날 신년하례예배에서는 송정명 대표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옥세철 장로(LA 홀리클럽 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최순복 권사(여성홀리클럽 회장)가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봉독했다.

설교는 한기홍 공동회장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제목으로 전했고 이어 박희민 명예 대표회장이 송정명, 진유철 대표회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진 대표회장이 2019년 사역 계획을 발표한 후, 김완중 LA 총영사가 축사, 한기형 목사가 남가주교협 회장 자격으로 격려사를 전했으며 이수훈 목사(세계성시화운동 대표회장)의 영상 축사도 상영됐다. 이성우 목사(상임본부장)가 사역 보고를 하고 박종술 목사(순무브먼트 대표)가 헌금송을 부른 후 이종용 목사(공동회장)가 축도했다.



권혁빈 목사가 개척한 씨드교회가 2월 3일 창립감사예배를 드리며 새 출발을 알렸다.

선교적 비전 품은 씨드교회

창립 감사예배

권혁빈 목사, “개척해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기적”

“교회 밖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세우는” 비전으로 개척된 씨드교회(권혁빈 목사)가 2월 3일 오후 3시에 교회 본당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박신웅 담당목사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씨드교회 창립을 축하했다. 권혁빈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노흥규 장로가 기도하고 카리스챔버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특송 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본문으로 ‘씨앗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설교했다.

축사를 전한 서정운 목사(전 미주장신대 총장)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 뛰어난 지성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김창환 박사(플러신학교 코리안센터장)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지역과 세계에 디아스포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고 축사했다. 민승기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도 “성도들의 허물과 아픔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하는 교회되라”고 축사했다.

권혁빈 목사는 “개척해보니 당연한 줄로 알았던 모든 것이 은혜요 기적이었다”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씨드교회가 창립할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신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적 교회의 비전으로 창립한 씨드교회는 권 목사가 담임으로 비전과 설교를 담당하고, 김한성 목사가 행정·목회, 배지완 목사가 예배인도, 이상훈 목사가 전략·양육을 담당한다.

예배는 주일 1부 9시, 11시 30분에 드리며 장소는 다음과 같다.

Gordon H Beatty Elementary School
8201 Country Club Dr. Buena Park, CA 90621 **전화:** (714) 337-6067



(좌측부터) 이상훈 목사, 배지완 목사, 권혁빈 담임목사, 김한성 목사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현미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한병 분말 100 g
$130+Tax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과 함께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먹습니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요거트에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밥할 때 넣어서 밥4인분 기준 2스푼을 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뿌려서 먹습니다.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항암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종양 억제율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만니톨, 에르고르테롤 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니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겐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구입 문의 213.434.1170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와 3 · 1 독립운동 (III)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지도자들 독립운동 결의
독립운동의 3원칙 :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
3.1은 주일정수의 정신 반영

김규식, 한국대표로 파리회담 참석

1919년 3.1 만세운동은 서서히 그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 체재하던 여운형은 마침 제1차 세계 대전의 마무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 크레인(C.R.Crain)을 만났다.

그는 크레인에게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담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는 일에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이 회담의 의장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초 김규식을 한국 대표로 파리회담에 파견하였다.

한편 미주의 대한인국민회도 1918년 12월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파리회담에 대표단을 파송하기로 결의 했다. 이승만을 단장으로 몇 사람을 보내어 독립 청원서를 제출키로 하였다. 또한 같은 달 뉴욕에서 열린 약소민족동맹회의 연례총회에도 참석하여,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약소민족 독립을 결의하는 데 동참하였다. 이러한 미주의 활동상이 일본에서 발간되는 영자 신문 「재팬 에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에 보도되면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국 독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들은 그 해 망년회로 모인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였다.

이듬해 1월 동경 YMCA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작성하여 일본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국 공관에 전달키로 하였다. 이 때 이들의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상해에서 장덕수 등이 왔고, 이광수도 북경에서 이곳에 와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2·8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식

드디어 3·1 독립운동의 한 도화선이 되었던 '2·8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식'이 2월 8일 동경 YMCA에서 약 400여 명의 학생, 교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계획대로 선언서를 일본 정부, 각국 공관 그리고 언론기관에 보내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포하는 자랑스러운 일을 거행했다. 이 일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지사들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하였고, 독립운동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종교계 중심으로 독립운동 모의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모의는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먼저 천도교측에서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 가는 때를 맞추어 독립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1919년 1월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최린(崔麟) 등 천도교 지도자들은 교주 손병희(孫秉熙)를 찾아가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 또한 독립운동의 3원칙도 합의하였는데, 첫째, 독립운동을 대중화할 것, 둘째, 독립운동을 일원화할 것, 셋째,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이었다. 이 중에서 비폭력으로 한다고 선언한 이유는 당시에 폭력을 동원하여 일제의 군대와 겨룬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일 뿐이라는 판단과 아울러, 당시에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벌인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측에서도 상해에서 선우혁(鮮于爀)이 평양에 와서 이승훈과 양전백, 길선주 등을 만나 서북지역에서 기독교 세력을 일원화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확인하고 상해로 돌아갔다. 서울에서는 YMCA 간사인 박희도(朴熙道)와 세브란스병원 약제사였던 이갑성(李甲成), 그리고 연희전문 학생이었던 김원벽(金元壁)이 주축이 되어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때 천도교 측에서 최남선(崔南善)을 통하여 기독교와 거사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승훈이 상경하여 이 문제를 협의하던 중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천도교측과 합하자고 권하여 이들이 천도교측과 합하게 된 것이다.

한편 불교 지도자 한용운(韓龍雲), 백용성(白龍城)도 이 일에 동참케 되었다. 불교계는 천도교나 기독교처럼 범교단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고, 위의 두 사람이 천도교측과 개인적 관계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 중 천도교측과의 연합에 동의하지 않아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았으나, 이 운동은 이제 종파를 초월하는 운동으로 민족 전체가 일체가 되어 한 몸짓으로 나서게 되었다.

민족 대표로 기독교에서 16인, 천도교 측에서 15인, 불교에서 2인 등 33명이 결정되었다. 당시 기독교의 교세는 천도교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형편인데도 천도교보다 그 숫자가 많았다고 하는 점은 무척 의미심장한 일이다.

일시, 장소, 선언서 작성, 인쇄 등 구체적 문제들 논의

대표자들은 거사의 일시, 장소, 선언서의 작성, 인쇄, 일본 정부와 각국 영사관에 선언서 전달 방법, 파리 평화회담에 대표자 파송 등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하나씩 결의하였다. 거사일은 3월 1일로 결정하였다. 이날로 정하게 된 것은, 고종황제의 인산일(因山日:장례)이 3월 3일 월요일로 정해져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견하고 그 전날 시위를 하려 했다. 그러나 기독교측이 그 전날이 주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결국 인산일 이틀 전인 3월 1일 토요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주일 성수의 정신을 엿 볼 수 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주일에 대사를 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독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는 일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예배를 도외시 하고 교인들을 시위에 동원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장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종로의 파고다공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전날 장소를 갑자기 서울 종로 인사동 명월관(明月館)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것은 이갑성의 세브란스 선생이었던 백커(Arthur L.Becker : 白雅德)가 이갑성에게 만일 파고다에서 선언식을 하게 되면 피끓는 청년, 학생들이 이를 말리는 일경, 헌병들과 충돌하여 유혈사태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언식을 제대로 진행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대중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충고를 해 주었고, 이갑성은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이 · 취임 감사예배가 27일 오후 5시에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목사)에서 열렸다.

"차세대 회원 발굴 육성에 힘쓰겠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김영균 장로 취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이하 남가주장로협) 이·취임 감사예배가 27일(주일) 오후 5시에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44대 회장에 김영균 장로가 취임하고 김용식 장로가 이임했다.

김영균 장로는 취임사에서 "지난 43대에서 김용식 장로님과 임원들께서 남가주장로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셨다. 남가주의 교회와 함께 차세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남상훈 장로는 "한국 장로회 28만 장로들의 마음을 모아 44대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성경적 가치관이 훼손되어가는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에 힘쓰는 장로협의회가 되어달라"고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장로협 수석부회장 이영수 장로의 인도로 손수웅 장로의 대표기도 후에 이주철 목사가 출 4장 1-7절을 본문으로 '후회 없는 부르심과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팡이를 붙들고 남가주 장로협의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했다.

부회장 박남수 장로의 헌금기도, 클라라 신의 찬양 후에 직전회장 김용식 장로가 이임하고 김영균 장로가 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의 축하 찬양 후에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축사하고 최대현 장로(남가주교협 장로 부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총무 노수길 장로의 광고 후이주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식사기도는 조선환 장로(증경회장)가 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에서 보내온 패를 증경회장 하기언 장로가 대신해 김용식 장로에게 공로패를, 김영균 장로에게 축하패를, 김신자 권사, 하형숙 권사, 오성애 권사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신화 교수 초청 세미나

2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감사한인교회에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로 박신화 교수를 초청해 '리딩세션 및 세미나' 가 열린다. 안산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인 박신화 교수는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지휘자, 이화대학교 교수, 한국 합창 총 연합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 아트 협찬으로 〈중앙 성가 38집〉으로 리딩세션을 진행하고 세미나에 오시는 지휘자분들께 〈중앙 성가 38집〉을 배부한다. 특별히 당일 참석해 중앙 성가 38집을 단체 주문하면 특별가로 주문할 수 있다. 참가비는 지휘자 $25(중앙 성가 38집 배부), 찬양대원/성가대원 $10(성가곡집 없음)이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등록하면 된다.

연락처: 전현미 회장 hchon@g.ucla.edu, (310) 381-9835



2019년 봄학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교적 신학교

학위과정
- 신학사 (B.Th.) Korean Track I English Track
- 교역학 석사 (M.Div.)
- 크리스천상담심리학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선교학 석사 (M.A. in Intercultural Studies)
- 선교학 철학박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비학위과정
- "교수 – 학생 간 밀착형"ESL
  - 기간 : 5월 20일~8월 30일(총 15주 강의)
  - 문의 : 사무실 (Tel. 562.926.1023 / office@ptsa.edu)
- "세상을 비추고 교회를 살리는"평신도대학
  - 기간 : 2월 7일~4월 25일 (총 11주 강의), 매주 목요일, 저녁 7:00-9:00
  - 문의 : 박동식 교수 (Tel. 213.703.9856 / dspark@ptsa.edu)

- B.Th., M.Div., MACCP, MAICS 개강일 : 2019년 1월 28일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개강)
- 선교학 철학박사 L.A. 집중 강의 : 1월 21일 ~ 2월 1일
  - 제1강 : 1월 21일~1월 25일 : Research Design (논문 작성법)
  - 제2강 : 1월 28일~2월 1일 : Contextual Theology (상황화 신학)
  - 로스앤젤레스 (L.A.),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동경, 한국 대구 / 경산 지역에서 개설 중
  - 문의 : 사무실 (Tel. 562.926.1023 / office@ptsa.edu)

입학상담 및 서류제출 : office@ptsa.edu / Tel. 562.926.1023, ext. 300, 303, 305 www.ptsa.edu

본교 비전과 특징

I-20 발행 | ABHE 정회원 | ats 정회원

- 전 세계 22개 노회, 460여 교회로 구성된 미주 최대 한인교단, 해외한인장로회 (KPCA) 직영신학교
  - 졸업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사역지 (교회, 선교지) 연결망 (북미,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일본 등)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성서대학교협의회 (ABHE),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 (ATS) 정회원 학교
- I-20 양식 발행 : ESL, B.Th., M.Div., MACCP 과정
- 90% 이상 유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한 교수진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전 세계 16개국에서 수업)
- 12개 종류의 각종 장학금 지원
- 자격 요건을 갖춘 B.Th.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교육국의 무상 학자금 제공
- 자격 요건을 갖춘 재향군인들 (Veterans)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의 혜택 제공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영기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98〉

아프카니스탄에 불어 온 복음의 훈풍(1)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는 이번 겨울에도 여러 나라 지역으로 단기선교팀, 현장중보팀, MIT(의료선교)팀 등이 파송 받아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중에서 아프카니스탄의 선교팀들의 보고가 올 겨울에 가장 활발했다. 필자는 올해 들어서만 엘에이 공항을 열 차례 이상 나갔다. 우리 선교팀들이 떠날 때 격려하고 또 돌아올 때 승전가를 같이 부르기 위해서다.

이번 선교팀 중에는 아프카니스탄(아국) 선교팀이 가장 많았고 다양했다. 현장중보팀의 사역으로 시작된 아국의 선교는 성경 말씀대로 '영적 전쟁'이었다. 현장중보팀은 아직 현지에서 선교의 발이 닿지 않은 지역을 찾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2시간, 24시간, 48시간 예배 등이 있다. 선교팀원들과 현지선교사 그리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 그 시간동안 쉬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현지 땅과 영혼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 계속 예배드린다.

너무나 강력하다.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청년단기팀과 일반 단기팀들은 현지 영혼들과 만나 친구도 사귀고 때로는 밤샘 전도도하며 복음증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편, 그들을 파송한 미주의 지체들은 중보기도팀을 구성해 SNS 네트워크를 통해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 간다. 이번 아국 선교팀들을 위한 이곳 중보기도팀에 합류한 수가 190명에 달했다.

매일 무시로 전해져 오는 현장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중보기도자들이 계속해 기도문을 올린다. 필자도 이들과 합류해 기도하고 기도를 읽는 중에 이들의 기도문을 다 모아 '아프카니스탄을 위한 기도문'이란 제목으로 기도책자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은혜롭고 강력하고 필요한 기도내용들이 수없이 올라온다. 이렇게 쌓아지는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의 단기선교팀들이 현지를 밟는 것이다.

이제 아프카니스탄은 더 이상 얼어붙은 동토가 아니다. 각 단체들의 복음의 훈풍이 현지를 녹이고 있다. 각자의 사역을 하다가 마주칠 때가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두 손들을 맞잡는다. 선교 현장은 그렇게 하나가 된다. 청년팀의 간증에선 현지의 캠퍼스가 열리고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들을 초청해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현지 청년들과 친구 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 자기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미국에서 온 다민족 청년들을 보며 그들이 감동한다.

"무엇이 이 다민족 청년들을 아국 땅에 오게 하였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물을 때 "오직 예수"라고 대답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국에 우리를 보냈다"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번 청년팀들은 너무 고생했다. 그들이 간 아국의 한 지역이 추운 한파로 전기가 며칠 동안 끊겼다. 아국의 겨울은 한국만큼 춥다. 전력이 없으므로 난방도 안 되고, 전화기 충전이 안 되니 SNS 네트워크가 안 되고 과연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다른 지역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모두들 염려할 때 청년팀은 그 추위 속에서의 사역을 택했다. 이곳 중보기도팀들은 계속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열매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

〈계속〉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예배의 행복을 누려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고국은 가족과 친지를 돌아보는 행복한 구정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교통체증이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교통사고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님들께 문안을 드리며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찾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여 드리기도 합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보람이자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명절에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명절에 모인 형제들이 부모님 앞에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의 유산에 대한 욕심과 이해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명절을 마치며 부모님께 불행을 선물(?)하는 자녀들을 흔히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며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한 특별 설교들입니다.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서 드릴 '예배법'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예배(제사)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입니다. 행복한(즐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명절에 부모님께 아픔을 드리는 것처럼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 아픔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신명기 12장에서 행복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드림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는 '십일조와 온갖 제물을 주께 드릴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제사)할 때에 그 택하신 곳으로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 드림이 즐거워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드리는 기쁨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둘째로 잔치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먹고 마시는 잔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구약 제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먹고 마심이 천국의 핵심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설명하면서 잔치를 언급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치의 기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치는 축제입니다. 잔치는 기쁨의 발산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의 기쁨도, 잃은 동전을 찾고 잃은 양을 찾을 때에 기쁨도 잔치로 표현됩니다. 예배에는 이런 잔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감사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중반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너희가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감사의 기쁨, 감사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복은 감사의 행복입니다. 예배를 감사로 드리면 행복합니다.

넷째로 함께의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은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하며 즐거워할 때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온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예배에는 더불어 정신이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배처소에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주재임 목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취임



남가주여성목사회가 지난 1월 27일 제9대 회장단 이 · 취임식을 거행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지난 27일 주일 JJ그랜드호텔에서 제9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거행하며 2019년 새 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주재임 목사(취임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백선용 목사(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 단장)가 기도하고 박수지 목사(부총무)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호우 목사(OC교협 이사장, 직전회장)가 "영광스런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 주재임 목사는 "분열된 여성목사회를 어떻게 단합하고 봉합할까?"가 여성목사회의 주된 명제라고 밝히며 "이 명제를 갖고 밤 세워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며 이 단체를 "단합과 사랑으로 이끌며 철저한 회개를 통해 현숙한 여인의 자화상을 회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헌신할 것"이라 취임사를 전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약속

요한복음 16:21-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요한복음 16:21-24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

공생애초기(公生涯初期)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깊고 오묘한 진리의 교훈과 필요에 따라 적요적소에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자신과 제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면 택하신 자기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로 자신들과 그들에 의해 세워질 교회들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해결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심

요한복음 9:31에"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없으심은 죄인의 욕구는 죄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부탁)를 들어 주셨다간 그 죄인의 범죄에 동참하는 공범자가 되실 것입니다.

3. "예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21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심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형틀에 못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많은 성도를 인하여 십자가로 해산하시느라 당하신 갖은 수모와 채찍이며 못자국과 창자국과 머리엔 가시에 찔려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당하신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하심을 받은 성도의 기도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 하시게 되겠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13에"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했습니다.

야고보서 5:13-16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 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목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 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심은 병자가 생겼으면 본인은 물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먼저 모두가 서둘러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사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심령들로 병자를 위해 간절히 합심 기도하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겠다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병자가 생겼다고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인하여 피차 회개하고 합심기도 함으로 영적 공동체의 단합된 결속으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승리와 부흥을 위한 기폭제(起爆劑)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야

요한1서 5:14에"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하셨으니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자기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셔서라도 서둘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2-3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하심도 혈기, 정욕, 시기, 다툼, 방탕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 주시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심이 확실한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5.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23-24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 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하심과 요한1서 5:15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볼 때 성도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살았을 때 그 성도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같고 행동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그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 될 것입니다.

오리건 주의 어느 농장에 안주인 되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 예배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23-24의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귀가하여 농장의 집이 한가운데 약간 언덕진 곳에 있었는데 집에서 바다 쪽을 바라볼 때 집과 농토 경계선 사이에 낮은 돌산이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농장을 두루 살피자면 그 돌산이 가로막혀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저녁노을에 붉게 춤추는 바다 물결의 아름다움도 볼 수 없게 하는 돌산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으로 서해인 태평양으로 던져 달라고 밤새도록 힘써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커튼을 쳐들고 돌산이 바다로 옮겨졌는가를 서둘러 살폈는데 웬걸 돌산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집사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일성(一聲)은 "봐! 그럴 줄 알았어"였답니다.

이 여집사님이 밤새도록 그 돌산을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라고, 꼭 옮겨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를 힘주어 반복하며 기도는 했지만 그 집사님의 의식(意識)속에는 자기가 아무리 애써 기도해도 그 돌산은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불신앙(不信仰)적인 기도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의 불신앙(信仰人의 不信仰)은 현대 신도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6-8에는"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하셨습니다.

6. 모두의 기쁨이 충만할 기도응답

본문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성도가 치유(治癒)받아 건강이 회복 되었을 때 그 병자가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기쁨이 대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의 죄를 대속하신 보람의 기쁨이 크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성과로 흐뭇해하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맡기신 양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에 나는 지금도 주님께 인정받는 종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에 시달리던 성도가 기도 응답으로 치유와 평안을 얻게 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목양지간 기도 응답의 결과는 모두의 기쁨이 충만해 지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CMM Since 1996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저렴한 회비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

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

골드플러스 건강 검진비 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

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

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Since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대표전화 773-777-8889 FAX 773-777-0695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CMS 승인 기관



좋은나무성품학교가 미주지역 성품교육 사역에 적극 나선다.

'좋은나무성품학교' 미주지역 사역 본격화

'Goodtree USA'로 한인교회 2세들 적극 도울 예정

성경에 기반한 성품교육으로 한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좋은나무성품학교(대표 이영숙 목사)가 'Goodtree USA'라는 이름으로 미주지역 사역을 본격화 한다. 이에 Goodtree USA는 오는 3월 세미나를 열고 미주이민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성품교육 사역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좋은나무성품학교는 지난 2007년 뉴저지에서 첫 성품세미나를 연 이후 지금까지 1년에 2차례 가량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좋은나무성품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보다 집중적인 미주지역 사역을 구상해 왔으며, 이에 3년만인 2019년 Goodtree USA라는 이름으로 이민교회의 2세들을 비롯해 교사와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좋은나무성품학교는 미주지역 사역과 관련, "지난 15년간 한국의 50만명 부모와 교사, 아이들을 좋은 성품으로 변화시킨 좋은나무성품학교의 성공적인 전략으로 미주 이민 가정과 교회, 부모와 교사들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좋은나무성품학교는 지난 2005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예레미야 9:24),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요한복음 1:14)을 경청·긍정적인 태도·기쁨·배려·감사·순종·인내·책임감·절제·창의성·정직·지혜의 12가지 주제 성품으로 가르치면서 한국의 많은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와 부모교육, 교사교육, 주일학교 교사강습회, 예수성품제자학교 등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좋은나무성품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성품교육은 비단 유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닌 평생교육 커리큐럼으로도 개발돼, 대표인 이영숙 박사는 그동안 청와대와 교육청 강연에 나선 것을 비롯, 국회 인성교육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지자체단체 세미나와 유초중고 교원연수 및 신문방송사 명사 특강 등에서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 3월에 Goodtree USA 이름으로 처음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이영숙 박사 및 좋은나무성품학교 전문 스탭진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주제는 좋은성품 부모세우기(성품대화법), 좋은성품 다음세대 세우기(순종 교사세미나) 등이다. 또 교회성품학교 운영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된다. Goodtree USA측은 현재 세미나를 열기를 원하거나 세미나에 참여하기 원하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교회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Goodtree USA는 오는 3월10일 오후 6시 뉴욕 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씨존 10주년 CBSN 4주년 기념강연, 3월11일 오전 10시 뉴욕 그레잇넥교회에서 미주 목회자 성품세미나, 3월16일 오전 10시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좋은성품 부모세미나 및 좋은성품 교사세미나를 진행한다.

문의) 김하종 미주 디렉터
612-803-9080

뉴욕서 장년 세대들만을 위한 찬양모임 시작 눈길



장년층을 위한 찬양모임이 뉴욕 플러싱에서 시작됐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실로암', '나의 힘이되신 여호와여' 등 장년층들이 선호하는 찬양을 들을 기회가 점차 부족해지는 가운데 뉴욕 플러싱에서 장년들만 모이는 정기 찬양모임이 오는 2월5일부터 시작돼 관심을 모은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찬양이 다르기에 세대별 찬양모임에서는 보다 구분되고 엄선된 찬양으로 회중들의 공감대가 더욱 커지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번 장년들을 위한 찬양모임이 이민교회의 다수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장년층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 생애 최고의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 찬양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7시30분 노던 169가 킹더마이저 미션센터(Kingomizer Mission Center)에서 진행된다. 이번 찬양모임을 기획한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는 "그 동안 찬양집회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다"면서 "오랫동안 찬양사역을 하면서 점차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집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특별히 장년들을 위한 찬양모임을 구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유태웅 목사는 "점차 교회에서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부르면서 장년층들이 자라면서 주로 불렀던 찬양들을 점점 부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번 찬양모임은 그 세대들에게 맞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들이 좋아했던 찬양들이나 또 새롭게 배우면 좋을 찬양들을 함께 부르며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찬양모임 분위기도 통상 찬양집회라고 할 때 연상되는 뜨거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차분한 컨셉으로 진행될 것으로 봤다. 유태웅 목사는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찬양집회도 은혜롭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차분히 노래하고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찬양모임도 은혜가 될 것"이라면서 "너무 거창한 찬양집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한 분, 한 분이 찬양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과 더욱 교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정기 찬양모임을 위해 찬양을 인도할 인도자와 말씀을 전할 설교자들이 다수 구성돼 있어 매주 다양한 시도도 가능하다. 또 크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인도를 맡길 예정이다. 화요 찬양모임의 전체 연출은 유태웅 목사가 진행하며, 사무총장은 임성식 목사(Kingdomizer, 기독저널 대표)가 맡았다.

문의) 646-258-4161, 718-708-9944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전도 오후 1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6:00
수요예배 오후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6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주님을 향한,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15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9:00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김장환 목사 "북한에선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교회"

BBC 인터뷰 "라디오, 복음 전할 수 있는 차선"



김장환 목사

"북한은 기독교 선교사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방송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Billy Kim) 목사가 영국 B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목사는 영국 BBC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선교사들과 외부인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한, 라디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북한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중국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또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라디오 방송국이 교회"라면서 "내게 와서 '(북한에 있을 때) 이불을 뒤집어쓰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었다'고 말한 탈북민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극동방송 라디오 진행자이자 탈북민인 주찬양씨는 BBC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 방송을 듣곤 했는데, 나의 오랜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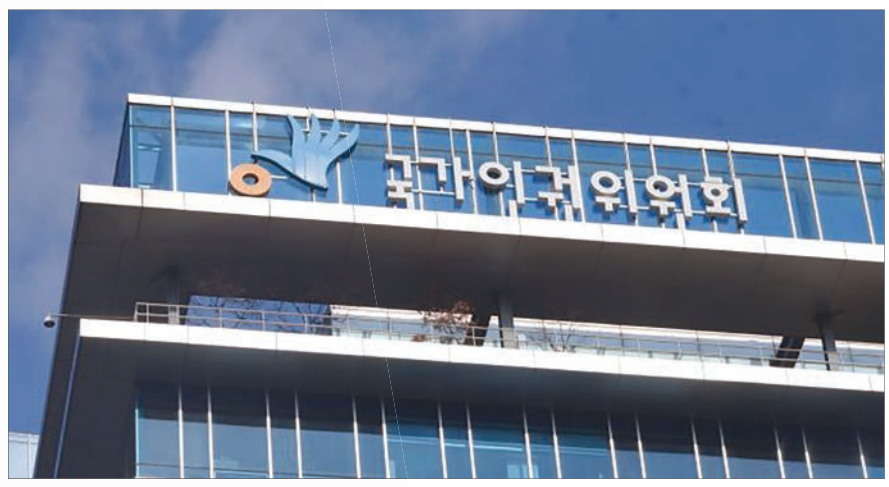
그녀는 "기독교 방송은 개인적인 사랑과 돌봄, 자유와 인권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순위에서 18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형을 포함해 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오픈도어즈는 "남한과 북한의 새로운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이 공동체 내부의 기독교인들을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포상금을 더욱 늘리고 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은 노동교화소로 끌려가거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같은 핍박이 4대에 걸쳐 발생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공예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 장소에서 다른 기독교을 만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며,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진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기독교인 수가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인권위, 헌법이 보장한 종교·예배·선교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에 한 권고와 관련해, "부당한 시정권고를 즉시 철회하라"며 1일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얼마 전 숭실대가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것에 대해, 이것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 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 정관과 그에 따른 인사 규정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규정해, 해당 정관과 인사규정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숭실대의 교육 및 교직원 자격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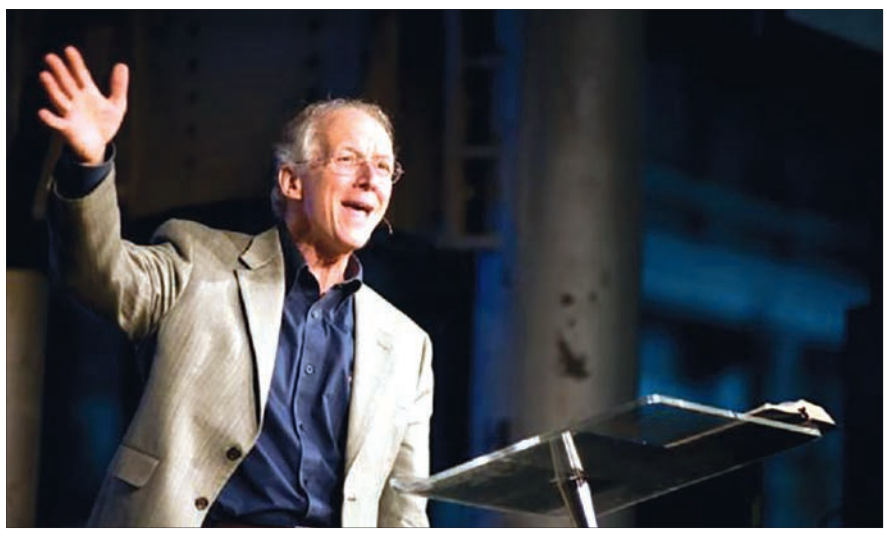
이어 "국가인권위는 숭실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사립대학의 자율적 교육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정체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한 교직원의 임용조건조차 요구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성이란 미명 아래 기독교 사학이 갖는 교육적 자율성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숭실대가 동성혼 인권영화제 개최불허 건에 대하여 강의실 대여취소 결정한 것은 기독교 교육이념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국가인권위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포퓰리즘적이고 정략적이며 이념적인 판단으로 기독교대학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대학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비상식적 판결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역차별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미명 아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교육부가 인가한 기독교 사학의 교육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마저 재단(裁斷)하려는 행위는 또 다른 권리 침해이고 차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존 파이퍼 목사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6가지 진리”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6가지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2019 크로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강연을 전한 존 파이퍼 목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위험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라며 “빈곤 굶주림 질병 전쟁 범죄 기후 변화 중독 노숙자 무지 성매매 등은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위험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들은 모두 비극적이지만 임시적이다. 그것들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지속된다”라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6가지 진리를 제시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끔찍하고 영원하다” “의롭다” “최후의 심판이 올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분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늘날 미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진실한 진술일 것이라며 “로마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기독교인들이 부흥과 각성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특권이 아닌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취하여 진노의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적들을 위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화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탄원한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들을 부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적에게 분노를 표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하며,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실리콘 밸리 안에서 이뤄지는 기독교 운동 ‘눈길’



‘트랜스포밍 더 베이 위드 크라이스트’(Transforming the Bay with Christ)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가 실리콘 밸리 지역의 영적 ·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TBC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실리콘 밸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IT 업체들이 들어선 곳이다. 혁신적, 창의적 마인드가 넘치는 이 곳은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리콘 밸리 지역의 성인 42%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앙의 불모지와 같아 보이는 이 지역에서도 교회, 사업, 기술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VM웨어(VM Ware) 공동설립자인 팻 겔싱어(Pat Gelsinger)가 ‘트랜스포밍 더 베이 위드 크라이스트’(Transforming the Bay with Christ, TBC)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실리콘 밸리 지역의 영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윌로우크릭교회 교사 출신인 낸시 오트버그(Nancy Ortberg)와 존경받는 교계 지도자들이 이끄는 이 단체는 교회와 제자들을 동원하고 ‘사회적 공감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TBC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기독교인 사장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곳 베이 지역에서 전체적인 복음운동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하는 고민을 시작했다. 베이 지역은 자원도 많고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 전 세계의 수 많은 이들이 이 지역으로 건너와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다”면서 “교회가 이들과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3년에 설립된 TBC는 마태복음 22장 37~40절 말씀과 같이 ‘진정한 영적·사회적 변화는 오직 사람들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일어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설립됐으며 통합, 확대, 증식 등 3가지 전략을 갖고 사역하고 있다. 특히 프란시스 챈, 존 오트버그, 칩 인그램 등 교계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오트버그 목사는 “촉매가 되는 네크워크를 이용해 교회의 존경받는 목회자들과 신앙을 가진 경제계 지도자들을 통합시키고 노숙, 가난, 가정위탁 시설, 교육, 기독교 비영리단체 활성화 등을 확대하며, 교회가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을 위한 베이 지역의 생태계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가속화할 수 있을지 상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운동은 약 5년 동안 진행됐으며, 베이 지역의 30개 지역 300개 교회가 목회자들의 네크워크에 동참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전체 아동의 거의 15%가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7,200개의 가정위탁시설이 존재한다.

오트버그 목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촉매가 되는 공간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에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최성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달라스에서 21년 만에 한국으로 "'오직 예수' 강조할 것"

강남중앙침례교회 제3대 담임 최병락 목사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제2대 담임목사에 이어 최병락 목사(46)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제3대 담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부임했다. 25살에 미국으로 유학가 교회를 개척했던 최 목사는, 21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는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교회에서 약 16년을 목회했다. 그를 포함해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이 교회는 현재 1,70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대형 한인교회가 됐다. 고심 끝에 최 목사를 떠나보낸 교인들은 그에게 '파운딩 패스터'(Founding Pastor, 설립 목회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선물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침례교단에서 매우 상징적인 교회이긴 하나, 이 교회로의 부임을 결심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미한교회를 제 살 갖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어찌 쉽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된 기도와 고민 끝에 그는 청빙을 수락했다. 세미한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자신으로 인해 연합하면, 세계선교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세미한교회는 '세계' '미국' '한국'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세계를 선교하자는 꿈을 그 이름에 담았다.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빙위원회에 제안했죠. 청빙을 수락할테니 세미한교회와 형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다행히 흔쾌히 승낙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이제 두 교회가 세계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 목사를 한국에 '파송'했지만, 세미한교회 교인들도 그 결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를 떠나보내기까지 많이 아파하며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국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최 목사는 "해외에 가면 애국심이 커진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그런 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 애틋한 마음이 있다. 세미한교회 교인들도 그런 마음에서,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절 보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세상에 영향을 받은 교회가 그들이 절대 붙들어야 할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결국 교회와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뿐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교회를 떠나 세상을 좇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만족일 뿐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렇기에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꼭 되고 싶습니다."

침례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B.A.)를 졸업한 최병락 목사는 미국 달라스에서 세미한교회를 개척한 후 최근까지 목회하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제3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김진영 기자

황교안 "적은 北 공산집단 그러나 주민은 품어야"

"북한에서 고통받았던 피난민의 아들"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정규재 TV 유튜브 영상 캡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북한이 다 우리의 적은 아니다. 북한 지배계급(이 적)"이라며 "법률적으로 보면 공산집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31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집단"이라며 "그런데 국방백서에서 그 개념을 삭제했다니 말이 되나"라고 했었다. 황 전 총리는 "그런 반면 또 한 측면에는 오히려 북한 집권 세력으로부터 억압과 피해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며 "그 둘을 잘 나눠서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결국 품어야 할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는 피난민의 아들이다. 북한에 우리땅을 뺏기고 쫓겨온 가족들도 북한에 살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피난민의 가족"이라며 "북한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피와 땀으로 세워 놓은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그냥 넘어가서 되겠나? 거기에 제가 목숨을 바치겠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종북 좌파가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본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 힘을 합해서 막아내야 한다.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자유우파"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해온 사람"이라고도 했다.

구원의 참된 자유를 누리라!



민 경 엽 목사
나침반교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는 노예제도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공공연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는 표를 많이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 용감하고 명석한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오해 받고 비방 당하고,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면서까지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63년 새해 아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고, 1865년 12월 18일 헌법에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에 관한 법이 명시되었습니다. 전국의 신문마다 "노예제도, 법적으로 폐기되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부지방의 대부분의 노예들은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노예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쉘비 풋이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뒤에 한 노예에게 링컨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오더랍니다.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링컨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시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유의 삶을 주셨지만 거짓 교사들의 꼬드김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기하셨지만 아직도 율법과 선행의 노예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선행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 공로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품에라도 갖게 된다면 그런 봉사는 독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 구원을 외면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헌금한다면 그것 역시 독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부디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로 봉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선행을 쌓기 전에 먼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신 여호와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2017년 4월 네팔과 국경을 맞댄 인도 북부의 바흐라이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순찰하는 요원에 의하여 약 8세 정도가 된 여자 어린이가 원숭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시 소녀는 사람을 두려워했으며, 원숭이와 같은 소리를 냈다.

이 소녀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고, 음식물도 식판으로 먹지 못하고 침대 바닥에 쏟아서 먹었다. 원숭이처럼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으로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잃어버린 2살 된 딸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소녀는 그 여인의 친딸로 판명되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은 가장 많은 교육기간을 요하는 존재이며,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학습 받는다.

가정으로 시작하여 친구, 직장의 동료와 상사 등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사회화를 통하여 문화를 익히고,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헌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어 병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도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한 나라는 주변 나라의 도움과 협력 없이 생존하기 힘들다. 국제적 도움과 교류를 통하여 종종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이자 기틀이 되었다. 강력한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수십 발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에 대하여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국가안보의 핵심에 속하는 상황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익을 목표로 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강력하고 신실하고 충실하고 영원한 동맹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힘과 도움이 되신다.

다윗은 죽음을 피하여 광야를 전전하였다.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피하였고, 변방도시 시글락을 피난처로 삼기도 했다. 추위, 배고픔, 배신, 핍절함과 누추함, 갈등과 좌절의 시간이 수도 없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주변의 강력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난 후에 드려졌다. 다윗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아 평탄한 반석 위에, 광활한 땅위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실뿐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강하여 도저히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구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원군이시다.

헤어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중생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핑크색 헤어롤 하나를 머리 중앙에 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심 고민했습니다. "너 머리에 헤어롤 깜박 했나 보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몇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발표했던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판사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분주했던지, 머리에 말은 헤어롤을 떼지 못하고 그냥 출근하는 모습이 신문에 났던 것이 생각 났기 때문입니다. 혹 말해 주었다가 너무 창피해 할까 봐 고민했지만, 같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그 어느 누구도 이 학생에게 헤어롤이 머리에 그대로 달려 있다고 말해주려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얘기해 줄까 망설이는 사이 여학생은 "안녕히 가세요!" 깍듯이 인사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동행했던 지인에게 헤어롤 얘기를 했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그것이 요즘 학생들에게 유행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여중생들이 헤어롤 하나 머리 중앙에 감고, 트레이닝 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다운 코트 입고, 심지어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유행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끔은 튀고 싶은 마음에 남과 다른 복장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학생들은 유행에 뒤쳐지는 것이 더욱 힘든 모양입니다. 유행에 편승해서 따라하는 행동은 메인 라인에서 제외되고 싶지 않은 심리에서 따돌림 받기 싫어서 동일화 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대적인 감각에 뒤쳐진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시대적 흐름에 여중학생들의 집단적 반란일지도 모릅니다.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다니는 세상을 향하여, 헤어롤 걸고 다니며 시위하며 여중생들의 모습으로 시대적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천명하며 고유성 내지는 특이함을 드러내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확실히 유행에 뒤떨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앞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구별되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존재감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여중생처럼 헤어롤이라도 머리에 달고 세상과 구별했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성도들이 머리에 달 헤어롤은 아마, 희생적 섬김일 것입니다. 자기 것 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화목한 모습일 것입니다. 머리에 두 세 개의 헤어롤은 달고 다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이방의 빛이 되리니'를 사명으로 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40세 전후
- 학력 : 정규대학 졸업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 또는 이상 소지자
- 경력 : 목사 안수 후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목회 경력 5년 이상자

2. 제출 서류
- 이력서 ····· 1부
- 자기 및 사모 소개서 ····· 각 1부
- 목회계획서 ····· 1부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1부
- 추천서 (2명이 각 1부씩 제출) (교수 또는 목회자 추천, 및 추천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필히 기재)
  추천인이 직접 제출 ····· 2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졸업증명서 (대학교, 신학 대학원) ····· 1부
- 목사안수증명서 ····· 1부
- 설교 동영상 파일 (최근 1년 이내) ····· 2편

3. 서류 제출 기한 3월 15일(금)까지

4. 제출 방법 : 두바이 한인 교회 홈페이지에서
(http://www.dubaikoreanchurch.org)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모든 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 dubaidkc@gmail.com 으로 송부

5. 참고사항
- 본 교회 양식만 접수 받습니다. 서류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결정 후에도 취소 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Dubai korean church

Youth Minister
Beautiful Church

- **Categories** : Youth Pastor
- **Denominations** : Baptist-SBC
- **Job Type** : Full-Time

Job Description

The Youth Pas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leadership, oversight and implementation of the youth ministry at Beautiful Church, which includes teens from thirteen years old to the age of eighteen. The Youth Pastor will work with the Director of Education Ministries m (DEM) for the goal of overseeing all ministries and events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reaching and discipling teenagers in Christ.

Application Procedures

Interested and qualified individuals should send a cover letter, resume, sample message (MP3 or MP4), Personal Testimony, Calling to Ministry, 2 References Letter (One from Former Ministry) along with salary expectations electronically to beautifulchurch@hotmail.com. Candidates who appear to be a good match for both Beautiful Church and this position from a preliminary review of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will be contacted for interviews and further candidating steps.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기독일보 목회자 청빙 참고
www.kr.christianitydaily.com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 626-810-3455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 : 소기범 목사) 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여 : $1,200/월
- 사역 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부장 (201-522-3011)
- www.gracelovechurch.org

은혜와 사랑교회
GRACE & LOVE CHURCH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201)567-353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프로지 PRO-Z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인기상품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주님미디어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기독교 도서들, 양적·질적으로 발전"

기출협,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발표



신앙일반(왼쪽), 목회자료(가운데), 신학(오른쪽) 국내외 최우수 수상작들.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방주석 장로) 선정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심사위원 12인이 2개월간 1차 심사해 어린이, 청소년, 신앙일반, 목회자료, 신학 등 5개 부문별 우수 도서 100종을 골라냈으며, 이들 중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 도서 10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대상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다.

최우수작은 어린이 부문 국내 꿈꾸는물고기 〈바이블 어드벤처(구약·신약 탐험)〉 국외 IVP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청소년 부문 국내 새물결플러스 〈요한복음 뒷조사〉, 국외 홍성사 〈고전〉 등이다.

또 신앙일반 부문 국내 두란노 〈왜 기도하는가〉, 국외 국제제자훈련원 〈랍비 예수〉, 목회자료 국내 아가페북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국외 규장 〈예수님의 모든 질문〉, 신학 부문 국내 페텔(PTL) 〈이것이 교회사다: 근현대사편〉, 국외 생명의말씀사 〈바우어 헬라어 사전〉 등이다.

심사위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고 또 출품되는 도서들의 양과 질적 제고가 눈에 띄어 감사하다. 기독교 출판계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시장을 선도하는 출판사들이 역시 다작을 출품했고, 선교회 소속 출판사들의 약진도 돋보였다"며 "특히 여러 군소출판사들이 중대형 출판사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내용과 장정을 갖춘 책을 다수 출품한 것은 크게 감동적"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신학과 목회자료 분야에서 학술과 실용 요소가 조화를 이룬 '역작(力作)'들이 많이 출품돼 기뻤다"며 "어린이 분야 책들은 시리즈물이 많았는데, 그림과 구성이 놀랍게 성장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올해엔 대상 수상작을 배출하지 못했다. 아쉽지만 대상작은 차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선정된 우수도서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적, 영적 성장을 돕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수작은 어린이 국내 부문 홍성사 〈우체통 44번의 봄〉, 언약의책 〈언양의 꿈(세트)〉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생명의말씀사 〈알고 싶어요〉 시리즈(하나님·예수님·성령님), 예키즈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와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겨자씨 〈물로 칠하는 매직 성경(2권)〉, 모퉁이돌 〈까꿍 아기성경 시리즈〉, 두란노 〈기도하는 아이들 2〉 등이다.

우수작 어린이 국외 부문은 생명의말씀사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니?〉와 〈어린이 큐티: 가장 사랑받는 100구절〉, 예키즈 〈노아의 동물들 잘 자요〉, 규장 〈마인크래프트 블록성경〉 신·구약 세트, 한국장로교출판사 〈어? 하나는 어디 있지?〉, 아바서원 〈어린이를 위한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등이다.

우수작 청소년 국내 부문은 규장 〈나를 돌보는 시간〉과 〈마음 드림〉, 큐티엠 〈날마다 큐티하는 청소년〉, 생명의말씀사 〈만화 마르틴 루터〉와 〈사명, 하나님의 빅픽쳐〉, 예영 〈위험한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 두란노 〈원 포인트 통합교육〉, 〈청년의 시간〉, 〈청진기: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등이다.

우수작 청소년 국외 부문은 규장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두란노 〈닉 부이치치의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생명의말씀사 〈하나님과 만나는 100일 과학큐티〉 등이다.

우수작 신앙일반 국내 부문은 성서유니온 〈묵상과 해석〉, 디사이플(요단) 〈삶을 이끄는 출애굽기〉, 새물결플러스 〈신학자의 과학 산책〉, 토기장이 〈육아를 배우다〉, 규장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두란노 〈가슴 찢는 회개〉, 〈생각이 내가 된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등이다.

우수작 신앙일반 국외 부문은 홍성사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전기》, 아바서원 〈공동선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두란노 〈그래도 소망〉, 규장 〈달라스 윌라드 부족함이 없는 삶〉, 예수전도단 〈목사도 사람이다〉와 〈주 같은 분 없네〉, 생명의말씀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CUP 〈좋은 신앙〉, IVP 〈행복〉 등이다.

우수작 목회자료 국내 부문은 요단 〈교회가 꼭 알아야 할 장례지침서〉, 홍성사 〈로마와 그리스도교〉, 규장 〈이스라엘 따라 걷기〉, 생명의말씀사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IVP 〈청년 트렌드 리포트〉, 두란노 〈본향으로의 여정〉과 〈치열한 도전〉, 새물결플러스 〈한국교회 설교 역사〉, 기독교문서선교회(CLC) 〈한국교회사론〉과 〈한국의 이슬람〉 등이다.

우수작 목회자료 국외 부문은 CLC 〈기독교 상담윤리〉와 〈신약개론〉,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성서유니온 〈마침내 시인이 온다〉와 〈티칭 로마서〉, 죠이북스 〈신약을 읽다〉, 새물결플러스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두란노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아바서원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등이다.

우수작 신학 국내 부문은 하기서원 〈21세기 글로벌 선교〉, 장신대학교출판부 〈가정 예배 건축학〉과 〈기독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과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 등이다.

이대웅 기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故 손양원 목사의 가족사

막내 딸 손동연 사모, 「결국엔 사랑」 펴내



「결국엔 사랑」
ⓒ헤럴드북스

한국의 대표적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막내 딸, 손동연 사모가 최근 저술한 자신의 회고록 「결국엔 사랑」을 통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족사를 공개했다.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는 이미 장녀 손동희 권사의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와 안용준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을 통해 익히 알려졌지만, 「결국엔 사랑」은 좀 더 세밀한 조명과 함께 손 목사와 남겨진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막내 딸의 눈으로 본, 한 없는 애정과 친절을 보여준 아버지 손양원에 대한 일화들이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던 그 원수를 양자 삼은(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손동인과 동신은 여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에 의해 살해당했고, 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았다)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2부에서는 손 목사의 사모 정양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 손동연 사모는 한 인터뷰를 통해 "저는 거의 평생을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기에 어머니의 신앙이나 삶에 대해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저의 간증집을 준비하며 반복되는 우연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들을 접하게 됐다. 사실상 살아있는 순교자와 다를 바 없는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타협없는 신앙 절개를 직면하며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 못지 않은 존경심을 품게 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모범을 이 세대와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라고 2부 저술에 대한 목적을 밝힌 바 있다. 3부의 주제는 치유와 용서이다. 4세 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버지의 싸늘한 주검을 마주한 저자는, 아버지를 순교시켜 죽게 했다는 울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의 쓴 뿌리를 안은 채 반평생을 살아갔다. 그러한 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치유해 주셨는지를 기록한 치유기가 담겨 있다.

저술을 함께 도운 남편 김원하 목사는 "우리가 경험한 치유와 용서의 물결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책을 써내려갔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모든 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이야기로 풀어쓴 성경

성서원 〈스토리텔링 성경〉 창세기 편 첫 발간

'성경을 한 번 손에 잡으면 밤새워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스토리텔링 성경〉 첫 권 창세기 편이 최근 발간됐다.

〈스토리텔링 성경〉은 소설처럼 성경 모든 장과 절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썼다.

대표 저자 김영진 박사는 "성경에는 삶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회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로 다루다 보니 세밀하고 리얼한 심리묘사가 생략됐다"며 "그러다 보니 독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로 환치하여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를 자기 인생에 적용시켜 해석하기가 힘들다. 〈스토리텔링 성경〉은 경건한 묵상을 통해 그런 심리를 생생하게 복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스토리텔링 성경〉은 성서원의 오랜 준비 끝에 탄생했다. 성서원은 1978년 〈현대어 성경〉 기획 출판 후 2005년부터 10년간 이를 수정·보완해 〈쉬운말 성경〉을 펴냈다.

대표 저자 김영진 박사도 〈재밌는 성경(전 3권, 2013)〉과, 성경 전장을 시로 풀어 쓴 〈성경의 노래(전 6권, 2017)〉를 쓰면서 사전 작업을 했다.

스토리텔링을 탄탄하게 보강하는 일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경력의 강정훈 목사가 맡았다. 〈스토리텔링 성경〉은 전체 20여권을 매달 1권씩 출간할 계획이며, 이에 '스토리텔링 성경 원정대'를 모집하고 있다. 북카페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내용을 무료 연재하며, 참여 댓글을 남기고 간단한 소감을 남기는 방식이다(성서원 북카페: www.naver.com/biblehouse1972).

김진영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입학/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 집 과 정

◈학사 과정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과정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과정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등록상담전화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故 손양원 목사 막내 딸 "결국은 사랑과 용서가 답"

가족 이야기 담은 「결국엔 사랑」 출간 감사예배 및 기자회견

"너는 잊지 말아라. 우리집 앞마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머니는 한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교회 개척"



'결국은 사랑' 출간 기념 기자회견 현장. (왼쪽부터) 김원하 목사(손양원 유족회장), 손동연 사모, 김동화 전도사

한국의 대표적 순교자 故 손양원 목사의 막내 딸, 손동연 사모가 회고록 「결국엔 사랑」을 출간하며 지난달 31일 순복음강남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후 기자회견을 했다.

감사예배에서는 주님의교회 담임 스캇 브래너 목사(레위지파 미니스트리 대표)가 설교했고, 「결국엔 사랑」을 기획한 김동화 전도사와 이지영 사모(주님의 교회, 레위지파 미니스트리)의 특송, 김성락 목사(목양중앙교회 담임, 문학박사)의 서평, 최석곤 장로(손양원 기념사업회 이사)의 축사, 김소엽 권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 총연합회장)의 시낭송, 저자 손동연 사모의 인사 및 시낭송이 준비됐다.

손 사모는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던 가족의 비밀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이 퍼즐을 맞추듯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란 생각이 들었다"며 "간증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오빠,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남기고 떠난 분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릴 축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사참배 거부로 집 앞마당에 시신으로 돌어온 아버지와 두 오빠를 회고하며 쓴 시 '마당 앞'을 낭독하기도 했다.

"너는 잊지 말아라. 우리집 앞마당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슬픈 일들은 우리는 잊더라도 너는 잊지 말아라..."(마당 앞)

손 사모는 또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 책을 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며 "결국은 사랑과 용서, 화해가 해답"이라고 했다.

특히 손 사모는 "어머니 이야기가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단 하나뿐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리란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당시 저는 어렸기에 자세한 내막을 몰랐는데, 이 책을 쓰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손 사모의 남편이자 손양원유족회 회장인 김원하 목사(전 가락순복음교회 담임)는 아내가 어린 시절, 목회자 자녀로서 느꼈던 부담감에 대해 전했다. 김 목사는 "처음엔 (손 사모가) 손양원 목사의 딸인 것을 몰랐다. 본인은 신앙이 없는데, 손양원 목사님 딸이라는 눈총으로 교회에 늘 나왔다. 그러나 당시 본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고, 또 평생 두통으로 고통 당해왔다"며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는데, 이젠 제가 신앙을 따라가지 못할 돈독한 믿음 안에 있다.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저 역시 하나님 일을 하는 분 정도라고만 생각했을 뿐, (손양원 목사의 아내인) 정양순 사모님에 대해 잘 몰랐다. 책을 쓰면서 손양원 목사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를 세우겠단 일념으로 수년간 고생한 일을 하나하나 알게됐다.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했다"며 "오직 신앙, 천국 소망이 분명했기에 그 모든 걸 기쁨으로 승화하고 원수된 자를 품고 정말 아들 같이 여기고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모습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 목사는 책을 써 가면서 겪은 기이한 일들과 책 안에 담긴 교회사를 설명하며 "한국교회사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세상을 살며 타협하지 않는 올바르고 순교자적 신앙을 살아야하겠다"며 "이 책이 읽혀져서 신앙을 점검하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3부 치유와 용서 주제가 특히 감명 깊었다며 "신앙과 하나님, 가족과 부모, 인생의 삶에 대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의 기자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여전히 처참하고 혼돈에 갇힌 가버나움

출연진 모두 해당 역할과 비슷한 환경, 경험 공유해

지난해 최장 15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작품이 1월 국내에 개봉했다. 제목은 '가버나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주인공 자인(자인 알 라피아)은 살인죄로 수감돼 내전이 한창인 레바논에서 자신의 부모를 고소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관계가 깨어졌다.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를 만큼 절망적인 상태. 영화는 시종일관 잔인하리만큼 먹먹함의 연속이다.

자인은 가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부모가 여동생 사하르를 건달에게 팔아넘기면서 가출을 한다. 출생신고는커녕 자인은 자신의 정확한 나이도 알지 못한다. 아마 어림잡아 12살. 그런 그가 가출한 뒤 불법체류자 라힐(요르다노스 시프로우)을 만나고, 그녀의 아들 요나스(보루와티프 트레저 반콜)를 돌본다. 자인은 요나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무책임했던 부모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관객은 이미 그가 결국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될 것을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

영화가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눈시울을 더 자극하는 이유는 나딘 라바키 감독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4년간 거리의 아이들을 취재한 경험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품의 모든 출연진은 전문 연기자가 아닌 해당 역할과 비슷한 환경,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다.

주연 '자인'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시리아 난민 소년으로 베이루트 지역에서 캐스팅 감독의 눈에 띄어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됐고, '라힐' 역을 맡은 요르다노스 시프로우는 실제 불법체류자, 자인의 여동생 '사하르' 역의 하이타 아이잠은 베이루트 거리에서 껌을 팔던 중 캐스팅되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영화의 제목 '가버나움'은 자연스레 성경을 떠오르게 한다. '가버나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혼돈'과 '기적'이 공존하는 도시였다.

이러한 제목 '가버나움'은 지금도 여전히 처참하고 혼돈에 갇힌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함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성경 속 '가버나움'은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중풍 병자, 백 부장의 하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을 비롯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영화 〈가버나움〉 스틸 이미지.

물론 감독이 제목의 뜻에 대해 밝힌 적은 없다. 그녀의 종교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에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날인 듯하다. 그녀가 과거 '행복한 부활절'이라는 말과 함께 작성했던 글로 리뷰를 마친다.

"행복하고, 순수한, 사려 깊고, 친절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영적이고, 관대한, 용서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

김신의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월드미션대, 개교 30주년 맞아 올해 각종 행사 준비 중

학술세미나, 기념연주회, 논문집 발간, 간호학과 설립 등



월드미션대학교 임직원들. 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임성진 총장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개교 3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학은 30주년의 핵심 모토를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로 2월에 학술세미나를 세 차례 열 예정이다. 5일 오후 7시에는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회장 전요섭 교수(성결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이라는 주제로 상담학 세미나를 연다. 12일과 14일 오후 7시에는 한국 종교학회 종교철학 분과위원장 정재현 교수(연세대)를 초청해 '고통에 대한 오해와 대안-인문학적 성찰을 통하여'와 '무엇을 믿는가?- 신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신학과 인문학 세미나를 연다.

두 번째 행사로는 7월 16일 오후 6시에 디즈니홀에서 이 학교 음악과의 3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교측은 이 연주회에 음악과 교수들 ,동문들,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월드미션대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주회에는 피아노 교수들(윤에스더, 황소명), 박종휘(파라과이 국립 교향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 김영해(이화여대 음악대학 겸임교수), 김용제(LA Sinfonietta 음악감독) 등 이 대학이 배출한 유명 지휘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 이 학교 졸업생인 채영석 작곡가가 요셉을 소재로 해서 창작 칸타타를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5월말에 말씀과 선교 학술지를 30주년 기념호로 발간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이 학교는 현재 간호학과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학교는 현재 교수, 시설, 인가, 학사 행정 등의 분야를 위해 모금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십수명의 정원을 모집해 학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섯번째로 5월말에 디지털 화보집 발간을 기획하고 있다.

임성진 총장은 "그 동안 ABHE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통해 학교 행정과 아카데믹이 자리잡혔다. 이제 주류학교로 들어가는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한국어와 영어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LA 라틴 목회자들을 위해 스패니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 위기 의식이 있지만 이를 기회로 여기고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자 노력하자"



주님의영광교회가 장경동 목사를 초청해 말씀성회를 개최했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가 장경동 목사(중문교회)를 초청해 말씀성회를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했다.

장경동 목사는 3일 주일 1부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양보하지 말자. 이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라며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를 영접하게 되었다.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고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장 목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며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요'라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홈리스라도 '주여'라고 살면 '나요'라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강한 지역 교회 세우는 일에 힘 쓰는 LA동부교협



LA동부교협은 최근 2019년 활동 계획 및 일정을 발표했다.

LA동부교협(회장 신용환 목사)은 지난달 28일 저녁 5시 30분 신원 레스토랑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2019년 활동 계획 및 일정을 발표했다.

동부교협은 교단과 신학배경을 초월해서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는 모임으로, 교회의 규모나 상황에 상관 없이 각자의 사역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이민사회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아 서로 세우며 함께 동역하고 있다.

다음은 2019년 동부교협의 일정 및 활동 계획이다.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는 동부교협은 특별히 사모들이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맨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모 모임(회장 고한나 사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교회와 지역 신학교들을 연결해 함께 세워가기 위해 '찾아오는 신학강좌'를 계획했다. 각 지역 신학교 교수들을 초대해 신학 강좌를 제공하고, 신학교의 상황에 대해 듣고 격려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3월 21일(목) 이상명 총장(미주장신), 5월 김창환 교수(풀러신학교), 9월 최윤정 교수(월드미션)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19년 동부교협 임원진은 회장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 부회장 최준우 목사(엠마오 장로교회) 총무 및 회계 박진석 목사(브리지교회)이다.

CBMC 서부총회 창립총회 열려

"섬김의 리더십으로 타인 봉사에 힘쓰자"



CBMC 서부총회 창립총회이 25일 가든스윗트호텔에서 개최됐다.

미주한인 기독실업인 서부총회창립총회 및 대회(KCBMCUSA Inauguration Ceremony)가 25일 오후 5시 30분에 LA한인타운의 가든스윗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미주한인 CBMC서부총회 공동준비위원장인 강승태 회장이 사회로 1부 총회, 2부 대회, 3부 대회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황선철 회장은 "CBMC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평신도 단체로, 1930년 미국 대공황기에 소기업주들이 모여 기도하던 것을 계기로 시작돼 현재 전세계 9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3부에서는 이종오 박사(클레오몬트 신학대학원 부총장)가 '선교적 경영과 기업인의 거름'을 주제로 강연하고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서영석 박사(로스앤젤레스 평통회장), 제임스 안 회장(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이사장)이 축사했다. 이종오 박사는 강연에서 "기업인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재정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며 "섬김의 리더십은 공동체에 중심을 두며 타인의 봉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의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 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100년전 삼일독립을 2019년 복음통일로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전문세미나/연합기도회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

고국의 복음통일을 위하여 선교역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영화, 동족선교 사역 등의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주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기도로 함께 합니다.

- **대상** : 미주 각지역의 성도 및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2시 ~ 15일(금)
- **장소** :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 **문의** : T.(425)775-7477, 기독일보 T.(213)739-0403, 사랑의빛선교교회 T.(626)744-9191

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

저녁집회 메시지


임현수 목사


이정훈 교수


이승종 목사

영역별 강의 | **주관교회** | **총무간사**


이학준 교수 플러신학교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총장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대표


윤학렬 영화감독 '철가방 우수씨'외 다수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대북설교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

■ 영역별 주제와 강사들 2월 12일(화) : 오후 2시~5시, 13일(수)~15일(금):오전 9:30~11:30 / 오후 1:30~4:30

역사 –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학준 교수(플러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Ph.D)

현재 이슈와 국제 정치법 –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이정훈 교수(울산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제 – "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
신창민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클레아몬트 경제학박사)

세계선교 – "남북통일이 세계선교에 미치는 영향"
송 원 선교사 (Cross선교회 상임연구원)

문화와 영상 – "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문화의 영향력", "통일영화제작이 필요합니다"
윤학렬 영화감독 (서울예대, 삼일독립100주년 남북공동시사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제작중, LA 아리랑/오박사네 사람들, 철가방우수씨, 지렁이 등)

통일신학교육 –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대 총장)

탈북사역 –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대표)

북한지하교회 –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 대북설교방송요원)

디아스포라 – "차세대 양육과 통일선교"
이승종 목사 (한인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통일의 전략 –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 끝까지"
김요한 목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 저녁집회 메시지와 강사들 2월 12일 화요일 저녁부터 매일 오후 7시~9시

첫째날(12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임현수 목사
둘째날(13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임현수 목사
셋째날(14일)	"청교도윤리로 세운 위대한 미국"	이정훈 교수
넷째날(15일)	"복음적 통일, 제단불 회복"	이승종 목사

주최 :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Global Expert Network for Reunification Korea)
주관 : 사랑의 빛 선교교회 협찬 : T.M.T.C, (사)합류통일동포연합, 기독일보, 기드온동족선교